

러시아 공장 작업장에서의 시간과 공간, 신체*

남영호**

1. 들어가는 말

러시아 안에서건 밖에서건, 사회주의 혁명 이래 러시아 노동자들은 노동 규율 어기는 일을 다반사로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빈둥대며, 그저 쓸모없는 물건만 만들어 낼 뿐이라는 말을 흔히 한다. 원자재나 완성품을 훔치는 것, 작업 시간의 주의태만, 근로 시간중의 음주가 러시아 노동 관습의 특징이라는 것이다.¹⁾ 노동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러시아 일터 전체의 문제라고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장 노동

* 본 연구는 2001년 8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러시아 시베리아의 몇몇 공장에서 행해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외에 2000년 8월 유럽 쪽 러시아 한 도시의 맥주공장에서의 참여관찰로 얻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현지조사에는 University of Cambridge의 Department of Social Anthropology와 King's College의 기금의 도움을 받았다.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1) 러시아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텔레비전 방송 가운데 다음과 같은 유머를 한 적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휴가를 떠난다. 하지만 [아마도 교통시설이 불편하고 휴가를 제대로 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휴가중에 점점 더 지쳐서 마침내는 일터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자들을 규율 위반과 무절제의 대명사인양 이야기하곤 했다. 2002년 겨울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도시에서 필자가 공장에서의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전, 주위 러시아 친구들에게 공장 노동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더니, 즉각적인 반응은, “만약에 노동자들이 너한테 보드카를 사내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 물론 한두 번이야 괜찮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매일 밤 너보고 술사오라고 할거야.” 같은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는 것 이야, 그 이전 다른 도시에서 맥주공장²⁾에 있는 동안 수없이 목격한 바이지만, 그것은 업종의 특수성으로 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뒤 기계수리공장과 인쇄소에서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 나는 실제로도 근무시간 중 음주를 종종 목격했으며, 또 가끔은 같이 마시기도 했다. 인쇄소에서는 노동자들이 잉크와 종이를 몰래 대규모로 빼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집안일이 있을 때면 여성 노동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작업장 건물로의 출입은 공식적으로는 엄격히 통제되었지만, 방학 때면 자녀들이 가끔 공장으로 놀러와 부모와 놀기도 했다. 필자가 다른 견습사원(15세)과 일할 때는, 그의 누이(16세)가 방학이라며 심심하다면서 인쇄소로 놀러 와 종이를 가지고 놀거나 맥주 마시는 것을 보기도 했다. 1996-7년의 대규모 정리해고 뒤, 인쇄소에는 빈 방이 많았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미용사는 꼭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장의 제본부서의 구석에서 근무시간 중에 노동자들의 머리를 만져주곤 했다.

이런 사례들은 러시아 또는 옛 사회주의 나라 전체에 특유한 노동규칙에 대한 희박한 의식을 입증하는 것으로 여겨질 만도 하다. 그래서 버드셸(Birdshell 2000)과 같은 관찰자는 왜 러시아에서는 회사의 시간, 공간 그리고 재산에 대한 도적질이 그토록 만연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드 세르토(De Certeau 1984: 29)는 근무 시간 중 회사의

2) 소비에트 시대의 계획 경제에 따라 러시아에는 지금도 한 도시에 특정한 업체가 한 두 곳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현지조사 대상 업체를 특정하지 않기 위해 여기서는 도시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한다.

공구와 재료를 이용해 개인적인 물품을 만드는 일이 발달된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혼란뿐더러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도 알콜과 관련된 문제로 근무중 주의 태만, 병가, 작업성과 저조와 같은 현상이 빈발해, 연간 10억 파운드(2조 원 가량)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The Guardian, 10 Feb. 2003). 그렇다면 러시아 노동자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사이의 차이란 노동규율을 위반하는 빈도와 정도의 문제, 즉 양의 문제인 것일까?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노동 규율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의 노동자됨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왔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사람은 생산적인 신체를 소유한 존재로서, 또 그 신체가 시간과 공간에 함목적적으로 배치됨으로서 노동자로 만들어진다. 노동규율은 신체를 시간과 공간 속에 배치해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고 다른 특정한 행위를 금지해 노동자를 만들어 내는 주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 노동규율이 어떻게 노동자의 노동자됨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 경로에 따라 동일할 수만은 없다. 여기서는 소비에트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공장에서 노동규율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의미가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이해, 재해석, 소비, 이용되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노동규율을 푸코(Foucault 1979)를 따라 최소한의 비용과 폭력으로 유용한 물건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체를 조직하는 기술의 총체로 정의한다. 인구를 노동력으로 전화시키는 근대적 기술로서의 노동규율은, 신체로부터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이며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것과, 비용이 많이 들고 비경제적이어서 장기간 지탱할 수 없는 폭력의 사용과 외부의 억압적인 장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시간과 공간이 노동규율을 통해 특정한 주체, 즉 훈육된 노동자를 탄생시키는 두 개의 주요한 영역이지만, 시간과 공간 그 자체 또한 근대 산업의 진전에 맞게 변형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소비에트 시대에도 노동자를 훈육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소비에트 정권이 바라던 방식대로는 아니었고, 시간과 공간의 절묘한 결합을 통해서였다. 이 논문은 러시아의 노동 규율과 노동 방식의 독특함은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한 문화에서 또 한 사람의 사회생활에서도 수많은 다른 종류의 시간과 공간이 공존할 수 있다 (Munn 1992: 94-95). 따라서 이 논문은 앞으로 고찰할 시간과 공간이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일반의 시간과 공간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특정한 방식의 시간과 공간, 즉 노동을 둘러싼 한 종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만 한정해 살펴보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공간은 다른 종류의 시공간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생활의 다른 영역에까지 넘쳐 흘러 들어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 나오는 인쇄소는 1917년 혁명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소비에트 시대에는 공산당 소유로 신문, 잡지, 일반 서적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인쇄물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550명 가량의 종업원을 고용했으나, 1996-1997년 절반 이상을 해고해 지금은 22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인쇄소는 소비에트 시대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중요한 사업체로 간주되어 대개 6년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에게는 아파트를 지급했다. 사유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2002년 현재에도 국영 기업체로 남아 있다. 기계수리공장은 인쇄소가 있는 도시와 인접한 위성도시에 있으며 1960년대에 농기계 수리를 담당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1992년 사유화되었다. 현재는 220여 명 가량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같은 도시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에 기계 납품하는 일을 주된 매출원으로 삼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2차대전 중 유럽 쪽 러시아에 있던 군수공장을 시베리아로 이전해 설립되었고,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민수 물자 공급으로 전환하던 중,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었다. 그 이후 1998년 사유화되

어 러시아 자동차 배터리 업체 중 상위권에 들 정도로 성장하였다. 현재는 55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유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이다. 맥주공장은 2000년 현재 국영기업체로 남아 있으며, 1,000명 가까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맥주공장은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업체이며 임금도 상위권 수준이다. 9개월을 보낸 인쇄소에서 일을 하며 참여관찰을 하기도 했지만, 다른 공장에서는 직접 일을 할 기회가 없었다. 공식적인 인터뷰보다는 생활을 같이 하며 나눈 대화와 관찰이 현지조사의 주된 방식이었다.

2. 소비에트 생산 주체의 형성

노동규율과 시간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조명한 최초의 인물은 역사학자 톰슨(Thompson)이다. 그는 Past and Present에 발표한 기념비적인 논문(1967)에서 새로운 개념의 시간, 시계 지향적 시간(clock-oriented time)은 성숙한 산업 사회를 가능하게 한 노동 습관을 창조하는 데에 엔진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시계 지향적 시간이란 무한하게 셀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나누워지는, 양화된 단위로서의 시간이다. 대규모 공장들이 농업과 가내공업을 차츰 대체해 나가면서, 시계 지향의 시간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안정된 시간 엄수와 동시성이 강조되어왔다. 푸코(Foucault)는 시간과 함께, 공간적 관계가 어떻게 근대적 주체를 형성해 나갔는가를 세밀하게 묘사한다. 공장은 병원, 감옥, 학교와 같이 신체를 격리를 통해 훈육하는 근대적 기제 가운데 하나이다. “훈육은 때때로 격리를 필요로 한다. 다른 모든 장소와 구별되는 한 장소의 특정화와, 그 안에 자신을 밀어 넣은 폐쇄가 필요하다. 이것은 훈육을 목적으로 한 단조롭고 보호된 장소이다”(Foucault 1979: 141). 신체를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가둠으로써, 원자재와 공구, 기계들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당

하는 일을 방지하며, 노동력은 방해받지 않고 소란 없이 그리고 감독의 지휘 아래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한 장소 내에서도 공간으로 기능적으로 세분해 특정 장소에서는 특정한 활동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노동과정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개별 노동자의 존재, 기능, 작업의 질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 노동자의 신체는 “그 행동이 작은 요소들로 나누어지고, 신체와 손발의 위치, 적합성, 지속시간들이 이미 짜여진 규범에 따라 진행되도록 정치적 해부학”의 대상이 된다(Foucault 1979: 152). 테일러주의가 잘 정식화했듯이, 신체의 어떠한 움직임도 높고 있거나, 쓸모없거나 비생산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신체를 길들이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결코 평화로운 방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또 후기 단계라고 해서 폭력 없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규율을 대중이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17세기 프랑스 파리 거주자 100명 가운데 한 명은 수용소에 예닐곱 달 아래로 갇혔던 적이 있고 (Foucault 1967: 38), 18세기 영국 산업자본가들은 게으름 즉 불규칙한 노동 리듬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Thompson 1967: 81). 또 교도소에서의 노역은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체에 가해지는 이 모든 외적 강제 가운데 아마도 가장 강력하며 지속적인 것은 실업의 존재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생존 수단마저 박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재생산 관계를 유지하고 훈육을 받아들이게 하는 커다란 힘이다 (Marx 1954: 590-600).

시간과 공간, 신체에 대한 이러한 톰슨(Thompson)과 푸코(Foucault)의 논의가 노동규율에 대한 연구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논의에서 노동자는 질적으로 변화된 시공간적 관계를 그저 수용하기만 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노동자는 주어진 노동규율을 시공간을 통해 신체에 내면화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시공간의 내용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하는 주체이기

도 하다. 또,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시간이나 공간은 근대화와 함께, 전면적으로 다른 하나의(singular) 새로운 차원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하게 분화해나가기도 한다. 게다가 푸코(Foucault)가 주장하듯이 산업화시대의 노동규율이 아무리 생산적이며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새로운 시공간적 관념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산업혁명이 시작된지 한참이 지난 1870년대의 영국 산업도시 뉴카슬(New Castle)에 대해 맥클랜드(McClelland 1987: 207)는, “사람들이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일터와 주점에서만 근로 대신 술을 마실 뿐 아니라, 음주는 직장과 가정 같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두 장소 사이의 임계적(liminal) 상태를 나타내는 초점이 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슨(Thompson)과 푸코(Foucault)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신체의 조직화는, 소비에트 볼셰비키 지도자들 사이에서 혁명 이후 공통된 과제였다. 특히 레닌은 혁명 전부터 기술적 합리화가 유용하다는 것을 부정할 적이 없으며, 그것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따라잡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발달된 자본주의를 따라잡고 추월하자”는 구호 아래 혁명 정권이 ‘과학적인 경영방법’(즉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을 통해 노동과정과 노동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 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Kuromiya 1988: xi; Siegelbaum 1988: 1-2). 브레이버만(Braverman 1975: 100)에 따르면, 테일러주의란 첫 번째로 구상과 실행의 분리이며, 전자는 경영자가 후자는 노동자가 전담해 노동강도와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가 각각의 노동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의 깊게 연구해 세분화된 동작의 최적의 조합으로 나눌 수 있게 나눠 배분하는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낭비되는 시간 없이 육체적인 움직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구조를 배치하는 단계였다.

볼셰비키 지도자들 역시 이렇게 이해된 테일러주의를 전폭적으로 도

입하기로 하였지만, 그 첫 번째 원칙, 즉 구상과 실행의 분리 단계에서부터 망설임과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제계획의 초기 단계인 1920년대 말에는 공산당원으로 막 경영자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구상”을 혼자 힘으로 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1929년 10월 1일 현재 전체 제조업체와 유관기관의 사장 가운데 84.9 퍼센트가 공산당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88.4%는 초등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34명 즉 2.6퍼센트만이 고등교육을 마쳤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들의 명목상 부하 직원(“부르주아지” 전문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육 일반, 특히 기술 지식의 측면에서 뒤쳐졌다”(Kuromiya 1988: 52). 그래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1921-1927)³⁾ 기간에는 하는 수없이 “부르주아지” 전문가들과의 경영권 공유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볼셰비키 지도자들에게는 불안하고 위협스러운 동거이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주도의 체제로 대체되어야 할 필요악으로 여겨졌다. 1925년과 1927년 사이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제 실적도 이들 부르주아지 전문가와 기술자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은 탓으로 돌려졌다. 산업화의 첫째가는 과제는 따라서 구상의 주체, 즉 공정 합리화와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산당원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돈바스 탄광 지대에서 “부르주아지” 기술자들과 다른 이들이 사보타지와 반역을 꾀했다고 하는 1928년의 샤흐티 사건은, 생산직 노동자들과 공산당원을 더 많이 교육시켜 사회적인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대대적인 운동을 더욱 촉진시켰다.⁴⁾

3)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은 소비에트 정권이 혁명후 전시공산주의 정책에 이어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인 1920년대에 걸쳐 펼친 경제정책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1917년 10월 혁명, 외국의 간섭 등을 겪으면서 신생 소비에트가 극도의 경제적 침체, 특히 농업생산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자, 볼셰비키 지도부는 식량 할당정발제의 폐지, 일부 기업의 사유화 등 “자본주의적인” 정책을 일부 도입했다. 하지만 볼셰비키 지도부는 이러한 신경제정책을 사회주의 경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조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4)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탄광 지대는 혁명 이전과 혁명 시기, 또 제 2차 세계대전 중 지배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반역의 의심을 받았던 곳이다. 소비에트 정권이 주장한 대

노동체제를 “근대화”하는 데에 두 번째 장애는, 노동자들이 생산과 경영을 통제해야 한다는 혁명의 의의와의 충돌이었다. 신경제정책 기간 중 노동인민위원⁵⁾이 경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한 것도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이 모순 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제 1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 중(1928년-1932년) 노동조합과 그 대표부(위원장)는 결국 경영자(사장), 당 세포(서기)와 함께 경영층으로 흡수되게 되었다. 경영층 가운데 당과 노동조합은 이론상으로 경영을 직접 맡는 것이 아니라 후원자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의 창의적 “구상” 능력의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위로부터 내려온 비현실적인 계획과 자주 발생하는 원자재 부족, 적절하지 않은 공구와 부품, 예측하기 힘든 전기 공급 등은 일사불란한 경영 지도를 불가능하게 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산활동을 진행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초반까지는 큰 틀에서 보아 구상(경영자)과 실행(노동자)의 분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1930년 초 당 지도부는 계획경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급체계를 좀더 중앙집중화해 달라는 경영자들의 요구를 비효율적이라며 거절했다 (Kuromiya 1988: 266-272).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라면, 제 2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미 8백만 명에 달하는 제조업 노동력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럴 때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중앙

로 “부르주아지” 기술자들이 반역을 모의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사건 이래 숙청되거나 강등되었던 소비에트 제조업체의 “부르주아지” 기술자들은 1930년대 초 생산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자 대부분 복권되었다.

5) 소비에트 정권은 혁명후 구 짜르 체제하의 정부부처 이름을 모두 인민위원으로 변경하였다.

집중화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개별 사업체에게 자원의 배분, 투자 전략, 임금 정책과 다른 경제 활동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Siegelbaum 1988: 295). 당과 GPU(KGB의 전신인 비밀경찰) 같은 국가 기관은 이제 경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삼가도록 했으며, 경영자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이 대목은, 소비에트 체제는 자유주의 정부와는 분명 여러 가지로 다른 것임에도, 로즈(Rose)와 오스본(Osborne) 등이 자유주의의 정부는 일종의 자연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시킨다. “정부는, 자유주의적인 정부가 가능하도록 한 바로 그 기초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자연적인 다이내믹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자율성을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한다”(Rose, N. & Osborne, T. 1996: 10).

“하지만 산업체의 경영자들이 새로운 방식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것도 또한 명백하였다. 비신스키는 경영자들이 국가기관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가기관에 찾아와 개입해 달라고 한다고 불평하였다”(Kuromiya 1988: 270). 한편으로 소비에트 당국의 입장에서는 개별 기업체 단위로 권력을 대폭 이양한다면 부패한 부르주아지 정권과 바를 바가 없어진다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종종 서로 모순되는 포고령과 규정이 작성되어 기업체로 하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시대에 누가 산업 구조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Whitefield 1993),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 경제에는 일종의 “거리를 둔 행동(action-at-distance)”(Latour 1993)이 필요하다는 점이 정권에게도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스타하노프 운동⁶⁾은 1930년대 초, 이러한 딜레마, 즉 정권이 중앙집

6) 스타하노프 운동은 1935년에 시작되었으며, 하룻밤에 할당량의 14배를 초과하는 실적을 올린 광부 알렉세이 스타하노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운동은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최대화하고 가용한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최대의 산출량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타하노프 운동은 이미 존재했던 사회주의적 경쟁 캠페인과 같은 선상에 있지만, 소비에트 정권은 이 시기 인적 자원을 최대화하는 것을 경제개발의 핵심적

중화를 더 진전시킬 수도 없고 또 개별 기업체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럴듯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이 운동에서, 중앙에서 작성된 계획은 밑으로부터의 “자발적인” 압력과 참여로 보충되어,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시겔바움(Siegelbaum 1988)은 스타하노프 운동에서 그토록 선전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수만 건의 합리화 제안이 실상은 그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코트킨(Kotkin 1995: 212)은 스타하노프 운동이 스타하노프 운동 참여 노동자와 비참여 노동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초래했음을 기록했다. 비록 당시의 서방 언론과 냉전시대의 학자들조차 스타하노프 운동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렸다고 인정했지만, 오늘날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운동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이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즉 스타하노프 운동이 기계에 과부하를 초래해 고장을 유발하거나 경영 질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효율을 떨어 뜨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미공과 같이 얽혀 있는 원자재 공급선이나 관료주의가 생산성 향상의 주된 장애였는데, 이는 스타하노프 운동으로는 극복될 수 없었다. 쿠로미야(Kuromiya 1988: 299)가 결론내리듯이, 스타하노프 운동과 같은 대중참여는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통제가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스타하노프 운동이 겨냥한, 노동대중의 “구상” 역할에 대한 일정한 참여의 효과가 제한적임이 드러나면서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정권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서로 구별되는 역할이 차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기관(즉 정치인이나 당이 아니라)으로부터 명령을 접수하는 경영자가, 개별 기업체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의 주체로서 생산을 지휘하고 조직하게 된다. 반면 현장 노동자들은 계획실현에 따른 어려움들을 푸는 데 참여하고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삼았다.

또 때로는 경영층에 압력을 넣어 생산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물자 분배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로부터 하달된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래서 시겔바움(Siegelbaum)은 스타하노프 운동은, 대중의 경영 참여를 북돋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노동 대중이 기계 및 기술, 공장 환경에 익숙해지고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을 대가로 노동윤리를 고취하는 것이 성과였다고 총괄한다. 심지어 스탈린과 몰로토프조차도, 한편으로는 이 운동을 보급하면서도, 이 운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윤리는 생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단지 계획 완수에 대한 집착과 충성심에 관련될 뿐이다. 더욱이, “스타하노프 운동이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간극을 좁힌다는 온갖 공식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참여 노동자들은 실상 고용과 관련된 규칙에서는 일반 노동자들과 결코 나을 바 없는 위치에 있었다”(Siegelbaum 1988: 299).

스타하노프 운동 뒤로는 1937-8년의 대숙청이 주로 경영자들과 기술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 하는 노사관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대숙청 기간중 특히 스타하노프 운동 참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혹시 적은 아닌지 의심해 보라는 정권의 격려에 뜨겁게 반응했다. 정권은 “경영자들과 기술자들의 권위를 손상시켰고, 현장 노동자들로 하여금 규칙을 깨고 명령을 무시하며 상사를 경멸할 것을 장려했다”(Fitzpatrick 1994: 338). 대숙청은 생산에서의 경제주체를 확립하는 데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 이 상처는 1939년과 1940년 노동규율 위반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었다. 물론 소비에트 정권이 끝날 때까지 또 오늘날에도, 경제와 직접 관련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정부 기관들이 임의로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정치와 경제 사이에는 언제나 일정한 관련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는 감찰 활동(police)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Foucault 1989: 261 참조).

자유민주주의의 이상(ideal)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월러스틴(Wallerstein: 1996)은 자본주의의 처음 시작부터 시장은 결코 자유스럽지 않으며 국가에 의해 독점화하고 부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많은 이들도 그랬지만 특히 벅-모스(Buck-Morss 2000: 19)는 “그러나 20세기에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의 이러한 분리는 지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소비에트의 문제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치적인 것이 경제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처음에 언급한 테일러주의의 원칙들이 소비에트 생산에서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계획의 기능은 기업체 사장이 아닌 정부부처와 위원회가 가지고 있었고, “구상”의 일부 기능들은 현장 노동자들과 공유되었다. 경영자의 권위는 공산당보다 결코 높지 않았으며, 때때로 현장 노동자들의 도전을 받았다. 테일러주의 도입의 극치라고 할, 기능적 사장제(역할과 기능에 따라 구분된 사장들이 각각 정부 부처나 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제도)는 관료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결국은 일인 총사장제로 대체되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세분화한다는 구상은 생산 현장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경우에 따라 이질적인 여러 업무를 행하는 상황으로 귀착되었다. 하지만 테일러주의의 완전한 실현은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테일러주의란, 실제 생산과정에 도입될 때에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접수된 이상이었던 것이다. 구상과 실행의 엄격한 분리, 같은 직무의 지겨운 반복은 노동자 편에서 뿐 아니라 경영자 편에서도 저항을 불러 왔다. “미국과 영국에서 감독자와 경영자 또한 상당한 정도로 [이런 테일러주의의 실행에] 저항을 계속해 왔다. 사실 노동자의 저항보다는, 높은 비용과 상호적대를 우려한 경영자의 반발이 테일러주의의 도입을 막아왔던 것이다”(Thompson & McHugh 2002: 34).

그렇다면 소비에트 생산방식의 독특함은 테일러주의를 최대한 도입하지 않은 데 있다기보다는, 테일러주의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와 테일러주의의 한계가 어떻게 보완되었는가 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테일러주의가 표상했던 “과학적” 방법과 효율성에 대한 소비에트 정권의 집착은 때때로 알렉산더(Alexander)가 터키의 근대화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했던 것과 유사하다. “여기서도 표준은 [내용보다는]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되었다. 중앙에서 계몽된 엘리트들이 정의한 대로의 ”문명“은 농촌 지역의 작은 업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Alexander 2002: 127). 다기계 운동(한 사람의 노동자가 여러 다른 기계를 다루는 방식)이 특히 2차대전 전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방침으로 떠오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업무는 극도로 세분화되었다. 1937년 소비에트 국가경제계획위원회(Gosplan) 비망록도 철강산업에서 업무세분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미국과 비교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필처(Filtzer 1992: 216)는 스탈린 사후의 소비에트 생산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극단적 업무세분화가 이를테면 “기계공이 일할 때마다 매번 공구 준비공과 보조기사가 와서 기계를 가동 준비시키기를 기다려야 하는 등의 상당한 노동 시간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는, 이러저러한 각종 운동이나 조치, 정책보다도 결국은 생산하는 신체 또 그런 신체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회관계가 핵심이라 하겠다.

3. 생산적인 신체의 형성

1917년 혁명 이전에도 이미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국가였다. 전세계 제조업 생산 가운데 러시아는 이미 1860년에는 7퍼센트, 1990년에는 8.8퍼센트, 그리고 1913년에는 8.2퍼센트를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혁명 이전에는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이나 가내수공업에 종사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1913년 현재 5천만 명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고작 3백십만 명만이 공장이나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Munting 1996: 330-1). 그래서 레닌이 1918년에 러시아인들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와 비교해 노동자로서는 결격이라고 탄식했을 때, 이는 다가올 산업화로 탄생될 미래의 노동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선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푸코(Foucault)가 썼듯이, “신체가 노동력으로 구성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복종의 체제 안에 포획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체제에서 필요는 또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계산되고 사용되는 정치적 도구이다. 신체는 그것이 생산적이면서도 복종하는 신체일 때에만 유용한 신체가 된다”(1979: 26). 이 유순한 신체, 산업 기술과 관련된 시공간적인 규율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신체는 계획된 산업화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볼셰비키 정권은 급속한 산업화와 동시에 유순한 신체를 창조해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실제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새로이 형성된 노동자의 숫자는 정권에서도 놀랄 만큼 유례가 없이 빨리 증가한 것이었다. 1928년과 1932년 사이에 1천 2백 5십 만 명의 사람들이 새로이 도시의 노동인구로 합류했고 이 가운데 850만 명은 농촌 출신이었다. 1929년과 1931년 사이 정권의 관심은 대량실업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자, 이제 노동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형성되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농촌 출신의 노동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기계를 다루는 게 쉽지 않았고, 자주 고장을 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많이 당하기도 했다. 그들은 일터에서도 도박을 즐겼고, 특히라면 주먹질을 해댔으며 술을 마셨다. 노동인민위원회에게 보낸 크라벨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10-12퍼센트의 돈바스 노동자들이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Kuromiya 1988: 221-222). 스타하노프 운동 같은 “자발적인” 운동으로는 이들 산업현장에 익숙하

지 않은 신참 노동자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 신체를 복속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스탈린 뿐만 아니라 볼셰비키 지도자 일반의 생각이기도 했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힘든 과거의 짐을 지고 있는 사회가 그 발전의 과도기에서, 강제적인 조치 없이 노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국가의 강제적인 조치의 도구란 국가의 군사력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노동의 군사화는 노동에 대한 보편적인 의무에 기반한 과도기 경제의 피할 수 없는 특징이다 (Trotsky 1918 “Work, Discipline and Order to Save the Socialist Soviet Republic”,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works/1918/1918-work.htm>).

이러한 맥락에서 소비에트의 강제 노동 수용소가 탄생했지만, 이것은 푸코가 분석했던, 서양에서 근대 초기에 있었던 강제노동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단지 전자는 더 잔혹했으며 더 대규모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수용소에서 수천만 명의 시민이 “노동 전사”로 거듭나는 동안, “보통의” 일터에서는, 이를테면, 1931년의 입법조치로 생산을 일시적으로라도 멈추게 한 데에 책임이 있는 노동자는 그 중단 시간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없게 했고, 노동자의 과실로 인한 불량품의 발생은 노동자가 돈으로 변상하도록 했다. 1940년에는 출근 시간에 20분 이상 지각한 노동자는 해고할 수 있으며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비록 1940년대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주어진 직업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용소로 보낸다는 법도 있었다. 코트킨(Kotkin 1995: 99)은 짜르 시대에 있었으나 혁명의 성과로 폐지되었던 내부통행증 제도를 부활시킨 데에는 건설 현장에서의 높은 이직률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들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치들은 “후진적인” 농민들을, 근대화된 기계의 부속물, 스스로가 일종의 기계가 되는, 유용하고 유순하며 생산적인 신체들로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들 폭력적인 조치는 1960년대를 거치며 차츰 완화되고, 종종 캠페

인으로 대체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여년 역사의 소비에트 생산체제는 푸코(Foucault)가 '감시와 처벌'에서 묘사한 그런 수준으로 신체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붙잡아 놓지 못하였다. 생산과정의 연속적인 흐름은 깨지기 일쑤였고, 고르지 못한 품질의 물건들이 생산되었으며, 회사의 기계와 공간을 이용해 개인적 물품을 만드는 일도 흔했다. 러시아 사회학자 알라세브가 목격한 사례가 아마도 전형적일 것 같다. 공장에 막 도착한 기계가,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사이, 보는 사람 없이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이 기계는 노동자들의 손으로 차츰 해체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전구, 부속장치, 수리도구, 제어 버튼, 그리고 각종 나사들을 하나 둘씩 빼 작업장이나 가정으로 옮겨 갔다. “마침내 이 기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결국 맞지 않는 부속들로 마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이 기계는 처음부터 규정에 나와 있는 정도로는 작동할 수 없었다”(Alashev 1995: 81). 월말에 계획에 맞추기 위해 몰아쳐 일을 할 때에는, 비록 각각의 노동자에게 세세하게 할당된 분업체계가 있더라도 관리부서의 노동자까지 동원되어 생산라인에 투입 되는 것이 예사였다. 한 전기기구 공장에서는 “월말이면 문자 그대로 전 공장이 조립라인에 변해, 사무직의 사무실까지 작업장으로 이용되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회계원이건, 생산관리자이건, 목수이건 누구건 작업에 동원되었다”(Filtzer 1992: 20).

소비에트 경제가 종식된지 10년이 넘었지만, 나 또한 소비에트 시대의 일부 특징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인쇄소에서 신문 원판을 만드는 노동자 안드레이는 쉬는 날에도 종종 작업장에 와, 마당에서 차를 수리하곤 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공간이 비좁은데다 길거리에도 공구를 늘어놓으면 도둑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또 노동자들은 종이와 잉크를 집으로 가져가곤 했는데, 아주 많은 양이 아니라면, 공식적인 규정과는 달리, 도둑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트럭 장사꾼이 생선을 싣고 인쇄소를 방문하는 날이면 반장

까지 포함해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가 사오기도 했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모스크바에서 도착해야 할 신문 원판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때에는 사장이 노동자와 어울려 카드놀이를 하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기 때문이었다. 전직 부사장 한 명이 말했듯,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에트 시대에 비해 최근에는 직장 내의 음주횟수가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름이면 노동자들이 돈을 각출해 일하는 사이사이 맥주를 마시곤 했는데, 덕분에 나도 술심부름을 하곤 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화지체로 단순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70년이 넘는 소비에트 특유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정권과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적응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소비에트 경제개발계획 초기 단계인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공장생활 부적응자가 속출한 것은 문화지체로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소비에트가 붕괴한지도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노동규율 문제는 다른 시각을 요구한다. 내가 안드레이에게, 왜 인쇄소 마당에서 차를 수리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공식적인 규율로는 허용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필자가 노동규율 위반에 대해 따지듯이 물어본 것이 아님에도, 그는 자신이 비번인 날, 회사 마당을 사용하는 것은 작업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맥주 공장에 있던 어느날, 조장이 퇴근길에 공장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어머니를 만났다. 조장의 입에서 술냄새를 맡은 어머니는 조장을 일하는 시간에 술만 마신다고 호되게 나무랐다.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노동규율의 존재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으나 그것이 “경우”에 따라 변형될 수도 또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우”에 대한 해석과 응용은 공장마다 다르고 작업부서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맥주공장에서 특히 남성 노동자

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콘베이어에서 맥주를 집어 마셨지만,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드카를 마시는 일은 드물었다. 맥주건 보드카건 직장 내에서의 음주는 심각한 노동규율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맥주를 마시는 일은 흔한 반면, 맥주보다 센 술을 마시는 일은 특별한 경우에만 일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맥주 공장에서는 인쇄소에서와 같이, 트럭 장사꾼이 정기적으로 작업장을 방문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생산과정이 콘베이어를 따라 진행되는 업종의 특성상, 설령 콘베이어에 붙어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공조차 자리를 완전히 비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인쇄소에서도 일단 제본 과정에 들어가면, 콘베이어에 붙어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모두들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듯이 보였다.

기계수리 공장에서는, 어느 날 조장이 조회시간에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내일은 휴일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근무 중에 술을 마셔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인필재이 지켜보는데도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인이니 내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조장의 이런 훈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점심시간부터 보드카를 마시기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관례적으로 휴일 전날은 작업 시간을 1시간 일찍 끝냈지만, 노동자들은 조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보다 30-40분 일찍부터 옷을 갈아 입기 시작했다. 일감이 없거나 임금 체불이 지속되는 공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고, 노동규율이 무너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위 사례의 기계수리 공장과 맥주공장은, 다른 많은 러시아 공장과는 달리, 일감이 없는 편이 아니었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이어서, 경영진에서는 나름대로 노동규율을 강화하려 애를 쓰는 중이었다. 사유화된 공장이라 하더라도 기존 노동자가 기존의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그런 노동규율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포스

트-)소비에트 생산에서의 시간은 톰슨(Thompson)이 이야기하는 시계 지향적 시간에 전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공간 역시 꼭 장소의 기능적 분할에 맞추어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훈육의 완성점이라 할 수 있는, 외부의 강제와 폭력 대신 자발적인 준수에 의해 노동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소비에트 계획경제가 붕괴하고 시장경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소비에트적인” 노동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소비에트 체제는 무너졌지만, 소비에트 체제가 낳은 시공간적 관계들은 상당히 많은 작업장에서 대부분의 경우 관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관찰한 가운데, 노동규율이 가장 철저한 곳은, 기존 노동자가 거의 없고, 사유화 이후 경영진의 대부분이 교체되었으며, 새로운 설비를 도입해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작업장을 만든 자동차 배터리공장의 경우였다. 소비에트 시대에 지어진 공장들은 업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간이 세분화를 통해 분할되어 있어, 감독하는 상사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소비에트 시대에는 직장 부근에 그 직장에 다니는 고용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는 탁 트인 커다란 작업장 몇 개에 다른 부서에 속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각기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고, 고용인들은 그 도시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 사례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러시아 노동규율의 특수성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이 논문의 주장 가운데 하나를 증명한다.

4. 작업장에서의 시간과 공간

그렇지만 업무 지향적 시간에서 시계 지향적 시간으로의 이행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결코 단일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직장과 가정의 공간적 분리 또한 항상 분명했던 것도 아니었다.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시장의 동향에 따라 업무 지향적 시간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으며 또 수공업적 직무 수행은 대공장 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영국의 경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시계 지향적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압박했다기보다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상사의 감독 아래 작업 단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Whipp 1987: 218). 한 프랑스 비행기 공장에서 직장 상사도 아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쓸 용도로 휴가용 보트, 바비큐 기계, 굴뚝 청소용 삽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다 (Anteby 2003)⁷⁾. 자동차 회사 로버(Rover)의 경우에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정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이 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회사에서도 신차 프로젝트는 1급 비밀이지만, 로버의 현장 노동자들로서는 신차에 대한 정보가 작업 준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미리 캐내 대비하곤 했다(Whipp 1987: 234).

자본주의 생산체제와 비교해 소비에트 생산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계획경제라는 점이고, 또 이것이 노동규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중앙정부로서는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원들을 일일이 살피고 그 과정을 점검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필처(Filtzer 1992: 19)의 예에서 어떤 공장의 한 작업조는 월초에 한번도 생산계획을 받아 본 일이 없고, 또 생산계획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작업할 재료나 공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다. 매달 10일이 되어서야 재료와 공구가 도착하지만, 해야 할 작업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항상 섞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에트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노동자들보다, 경영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다면, 생산과정에서 더 많은 통제권

7)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적인 용도의 작업에 아무런 “도덕”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Anteby는 첫째 직장상사가 고객에게 선물하기 위해 어떤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경우와, 둘째 물건을 만든 개인이 그것을 판매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대체로 “비도덕적”으로 여긴다고 보고하고 있다.

을 가지게 되었다 (Clarke 1996). 그들은 이 재량권으로 비현실적으로 작성된 계획에 맞춰 물량을 생산해 내기 위해 매일 같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남한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도, 또 상당한 정도로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업무제인이 생산임무의 완수와 생산과정의 혁신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Yoo 1995). 영국 Rover의 노동자들 또한 대략적인 업무 지시만 받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실행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할 정도의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었다(Whipp 1987: 233). 간단히 말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산업화가 새로운 종류의 시간 관념을 들여오는 기능을 하기는 했지만 이 시계 지향적 시간은 결코 전면적으로 일률적인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시계 지향적 시간을 생명이 없는, 하나의 선위에서의 연대 기적 순서에 따른 점들의 연속인 것으로 파악하는 분석은 잘못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시계의 시간은 살아 움직이면서 목적의식적인 활동과 경험에 새겨져 있다. 사람들은 이 시계열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더 넓은 우주-정치적인 질서를 인식하게 된다”(Munn 1992: 111). 로버(Rover) 자동차회사의 경우, 시계 지향적 시간의 체제 아래에서도 업무 방식과 규정은 엄격하게 분권화되어 있었다. “차체부의 노동자들이 분단위의 기본급에 묶여 있을 때, 도장부 노동자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협상하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쏟았다”(Whipp 1987: 233). 행위자가 시계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가 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때로는 시간의 양화된 단위인 시계 시간이 주체의 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충돌하기도 한다. 1980년대 노동시간 유연화를 둘러싼 영국철도의 노사분규는 회사측의 노동시간에 대한 순수하게 경제적인 계산방식이, 노동자측의 시간에 대한 질적인 차별성에 대한 요구와 충돌한 사례였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전지적(全地的)인 감시의 망과 궁극적인 훈육의 내면화를 성취해 낸다는 식이 아닌, 행위자가 다중다기한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수취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모

델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드 세르토(De Certeau)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논의는 흥미해 볼 만하다. 개별화되고 다종다기한 행위자의, 시간에 대한 수취는 드 세르토(De Certeau)가 약한자의 기술(De Certeau 1984: 36-37)로서의 전술이라 부른 것의 일부이다. 전술은 외부 지형 위에서 작동하며 그 지형에 부과된 법칙들을 우회한다. 반면 그는 “전략은 권력과 의지를 지닌 주체(기업체, 군대, 도시, 연구소)가 특정되자마자 가능하게 되는 권력 관계의 계산 (또는 조작)”으로 정의한다(ibid.: 35-36). 적절한 전략이란 “시간에 대한 공간의 승리”일뿐 아니라 “시야를 통한 공간의 장악”이다. 공간을 숙지함으로써, 전략은 미래의 동작을 예측하고 확장을 준비하며 “기지”를 외부의 표적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예를 들어, “넓게 트인 사무실, 유리문, 유리로 된 집기와 강철이나 크롬, 광택 나무로 된 딱딱한 표면은 모두 가시성과 반사를 통해 노동하는 신체가 도망할 어떤 틈도 없게 만든다”(Holliday and Thompson 2001: 120). 이런 한편으로 분할된 공간의 원형감시체제(panopticon) 아래서도 전술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기대 없이 기회가 닿는 대로 전략의 시야를 피하려 애쓴다(ibid. 37). 전술은 “적절한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선택하는 계산된 행위”이다.

드 세르토(De Certeau)의 논의는 원형감시체제(panopticon) 기제의 지배적인 지위(전략)가 전능할 수 없다는 것을 문제삼으며, 그것이, 스스로를 담론으로 정립하지 못한 채 성층화된 많은 과정의 밑바닥에 머물 뿐인 무수한 다른 기제들(전술)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그가 내린 적절한 전략의 정의, 즉 “시간에 대한 공간의 승리”는 자본주의에서의 노동규율 문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듯이 보인다. 이와 반대로 소비에트 생산방식의 특징은 공간에 대한 시간의 지배를 적절한 전략으로 채택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에트 노동자들은 다른 무엇보다 상부에서 하달되어 부과된 절대절명의 시간, 생산

계획에 묶여 있지만, 공간을 통해 전략을 우회하는 기술들을 개발해 낸 것이다. 소비에트 경제에서 계획이란 역사적 진보를 가속화함으로써 공산주의적 미래로 가는, 시간에 대한 전쟁이다. 벡-모스(Buck-Morss)가 말하듯,

현재는 넘어서야 할 장애이며 미래의 공산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희생되어야 할 제물이다. 미하일 헬리는 스탈린이 시작한 5개년 계획의 개념을, 국가 원수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시간의 국유화”라고 묘사하였다. 계획은 일방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강제하였다. 국가 주권의 행위자는 단지 물질적인 자원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스탈린이 시간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속도를 늦추라고, 또는 일단 “사회주의”가 달성되었다면 완전히 멈추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시간의 담론은 주권 행사의 영역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Buck-Morss 2000: hypertext 37-38).

그녀는 국민국가 일반이 영토(공간)에 대한 배타적 권리 행사에 기초로 한다면, 국민국가로서의 소비에트는 그 지정학적 정당성을 공산주의로 향하는 과도적인 지위에 두었으며 소비에트의 정치적 전망은 시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벡-모스(Buck-Morss)는 소비에트의 독특함과 자기모순을 국민국가 차원에서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에 비교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 논문은 그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논의를 소비에트에서의 생산과 노동규율을 설명하는 데 응용하려 한다.

5. 공간에 대한 시간의 지배

소비에트 생산에서 전략은 첫째로, 생산계획으로 구체화된 전체적인 시간을 기능에 따라 분할된 공간을 통해 노동대중에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공간의 분할을 엄중한 대의를 지닌 시간 앞에서는 상대

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은 역사적 단계의 단선적인 경주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지만 경주를 단축시키기 위한 계획 안에 압축시켜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된 단위로서의 시간과 달리, 여기서의 시간은 꼭 균일화와 양화 자체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은 계획에 의해 정복될 수 있고 당국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각 산업에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분할은 그것이 시간의 명령에 이바지할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필처(Filtzer)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무실 공간도, 직장 안팎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능력과 권위를 가진 엄중한 계획이 제시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작업장 공간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사업체와 사업체 사이의 비공식적인 만남과 협상, 또는 국가기관을 낀 압력과 조정은, 그것이 시간의 정복에 기여하는 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직장과 가정이라는 공간의 기본적인 분리조차 계획을 완수하는 데 필요하다면 넘나 들 수도 있게, 가정은 직장에 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소비에트 시대 때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업체들이 그 고용인들에게 주택을 배급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쇄소의 공산당 서기였던 빠샤는 나에게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현재의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회사에서 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 나는 거기 살 때에 아무 나쁜 짓도 할 수 없었어. 사람들이 서로 뭘 하는지 항상 보고 있거든. 어느 날 나는 발레리같은 부서의 노동자에게 내 아파트 열쇠를 빌려 주었어. 발레리가 어떤 여자하고 자려고 했지. 그런데 이웃이 그가 내 아파트에 어떤 여자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웃에 다 떠벌린 거야. 결국은 발레리의 처도 그 소문을 듣고 당에 가서 그를 혼내 주라고 말했지. 맙소사!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왜 당이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참견해야 돼? 나는 항상 그런 것에 반대했어. 당은 당이지. 제발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당은 정치에만 관심을 쏟아야 했어.

직장과 가정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전략은 사회 전체에 걸쳐 상호 감시와 자기검열의 촘촘한 망을 형성한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하던 당시에도 회사에서 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쇄소 노동자들이 꽤 많았는데, 여기에 사는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같이 일하면서 매일 같이 이웃 동정과 소문을 서로 교환하곤 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노동자도 빠사와 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나는 그 여자들이 싫어. 그들은 내가 거기 살 때 나를 염탐하곤 했어. 사람들은 내가 몇 시에 불을 끄는지 누구하고 같이 들어 왔는지 하는 것을 항상 알고 싶어 했어. 또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니면 부유한지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와 이사했지.” 이렇게 말한 여성 노동자는 이혼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 또 유부남과 사귀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 회식은 어떤 면에서 임계적인 공간, 즉 일도 아니면서 휴식도 아닌, 하지만 용납 가능한, 일상생활로부터의 작은 일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에트적 맥락에서 직장에서 회식을 갖는 것은 그저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 시간의 공간에 대한 지배가 작동하는 한, 회식은 작업장 내 사회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것은 공간을 마구 뒤섞어 버리는 것이 처음부터 전략의 의도였다는 뜻이 아니라, 공간은 시간을 통해 넉넉하게 지배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의미이다. 공간의 기능적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이르쿠츠크 인쇄소는 필자가 관찰한 한국의 인쇄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양자 모두에서 기계들은 생산의 흐름에 맞게 배치되어 있었고, 생산부서들도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었으며,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시설들, 이를테면 식당이나 강당 같은 것은 작업장에서 떨어진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우, 개별 사업체 차원에서는 사장이, 개별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그 현신인 생산계획은 언제 공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사장이나 부서장은, 이렇게 생산계획에 보조를 맞춰 때로는 잔업이나 철야 근무를 통해 생산 속도를 높이

기도 하고, 때로는 생일 잔치 같이 느슨하게 풀어줄 수도 있었다.

대중적인 구호, “직장은 제2의 가정”은 기실 이런 점에서 그 반대를 지칭한다. 즉 집은 단지 직장의 연장일 뿐이다. 그러나 종종 발생하는 기능적 공간들의 변환은, “만약 직장이 제2의 가정이라면, 집에서 술 마시는 것처럼 직장에서 술을 마신들 또 어때?” 하는 식으로, 때때로 반대 방향의 작용을 불러 오기도 한다. 고용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의 대부분이 직장에 직간접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츰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에트 시대에는 카페 문화라는 것이 없고,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체육관, 연주회관, 휴양소 등만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쉬는 장소 또한 회사의 자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범위에 속해 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음주는 부서장에 의해 반(半)공식적으로 주재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살짝 응용해 일반 노동자들 스스로가, 비어져 있는 많은 공간 가운데 하나에서 조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가정이 직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면 직장에 있는 물건이 가정으로 공간 이동을 한다 한들,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 않은가. 생산에 도움이 되는 한, 모든 비공식적 관계를 다 이용해야 한다면, 노동자들도 그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빠샤는 회사를 통해 첫 번째 차를 샀을 때 차고를 마련하느라 애를 먹자 사장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사장은 차고를 가진 다른 회사 사장에게 협박반 부탁반으로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인쇄소 사장은, 다른 회사 사장에게 빠 가 듣는 데서 “자네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인쇄할 것 없나?”하고 전화로 올렸다.

이 반면에 시간이 전체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정교한 행보를 취하기에는 너무 느릴 수도 있었다. 한편으로 노동자들은 자의적으로 조정되는 근무시간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고 작업재료가 오기까지 카드나 치면서 기다려야 하는 신세이지만, 동시에 그들이 일터에서 허비한 시간은 중간관리자를 압박해 물질적인 또는 비

물질적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도 했다. 또 노동자들은 일이 없을 때면 작업장 안의 눈에 띄이지 않는 곳에서 술을 마실 수 있기도 했다. 1996-7년의 대량 해고 이래 인쇄소에서 노동자들은 빈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고, 중간관리자가 그 공간들은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개인적인 작업을 하기도 했다. 시간 전체가 직장과 결부되어 있다면, 그 시간의 개인적 사용 역시 공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반(半) 공식적으로 인준 받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내 딸이 오늘 대학에서 졸업장을 받는데, 이런 날 한 잔 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이런 작은 행사 때문에 레스토랑을 빌릴 형편은 못 되고 또 밖은 추워서 거리에서 마실 수도 없어.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보드카 한 병을 휴식 시간에 마시려고 가져 왔지. 예닐곱 명인데, 보드카 한 병이야 작업하는 데 지장을 주지는 않지”하고 어떤 노동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6. 맺음말: 불확실한 시간과 공간으로

지금까지 소비에트 공장 작업장에서 시간과 공간이 각각 어떻게 형성, 변화되어 왔으며, 어떤 상호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의 시간은, 버더리(Verdery 1996: 40)의 “시간의 국유화”(etatization), 즉 “루마니아 당 지도부가 루마니아인의 시간에 대한 통제의 많은 부분을 점차적으로 수용하는” 것과는 개념상 다른 차원이다. 1980년대 루마니아에서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당 지도부는 해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대중의 시간을 빼앗았다. 개인의 텃밭에 투자된 시간은, 그 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강제 계약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수취하면서 빼앗겼고, 전력 공급 시간의 단축을 통해 여성들은 언제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하는지 하는 시간 선택권을 박탈당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대중교통은

통근자들로 하여금 서너 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출퇴근하게 만들었다. 그 반면, 국가의 이러한 일방적인 수취에 대항해, 루마니아인들은 국가 재산을 도용하고, 엄청난 팁을 요구하며, 다른 공식적인 ‘공물’을 내지 않으려 하는 방식 등으로 저항했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는 노동 규율을 통해 생산적인 신체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적 관계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둔 반면, 버더리(Verdery 1996: 57)의 국가에 의한 시간의 수취는, “권력을 표상하고 복종을 생산하며 신체로부터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활동을 박탈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소비에트 러시아의 공장체제와는 달리, 막판에 몰린 1980년대의 루마니아 정권은 체제 유지에 너무도 필사적으로 매달려 해외 부채 상환을 위해 비경제적이고 억압적인 조치들을 취했을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보다 중요하게, 버더리(Verdery 1996: 40)는 시간을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로 파악하기보다는, “시간을 둘러싼 투쟁이 시간을 문화적으로 구성하고, 집단 사이의 쟁투를 통해 그 의미를 생산하고 변화시킨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즉 “시간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간에, 그것의 흐름에는 환원불가능한 지속적인 측면(irreducible durative aspect; 즉 자연적 측면)이 존재한다”(op.cit.)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환원불가능한 지속적인 측면’을 ‘문화적으로 구성된 시간’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시간의 지속적인 측면은 오직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논문에서는, 계획 경제를 통해 만들어지고 주체들의, 계획을 우회하는 책략과 저항을 통해서 형성되는 문화적 맥락-을 통해서만 주체들에게 포착되고 인식되며 경험된다. 우리는 시간의 자연적 흐름의 존재를 전제할 필요가 없다. 단지, 자신을 언제나 하나의 문화적 구성물로만 드러내는 특정한 종류의 시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버더리(Verdery)와 같은 시간관에 대해 부르디외(Bourdieu)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데카르트적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신체를 하나의 사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물로서의 시간, 시계수선공과 과학자의 시간은, 시간과 역사를 하나의 주어진 실재, 실천에 앞서 존재하며, 외재하는 역사에서의 사물, 또는 모든 역사적 과정에 선형적인 빈 틀로 간주하는 형이상학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행위하는 주체의 관점을 재조직함으로써, 실천을 '시간을 자리매김함'(temporalization)으로써, 또 실천이 시간 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생물학적이거나 천문학적 시간에 반대되는 인간적인 시간)을 만든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깨뜨릴 수 있다(Bourdieu 2000: 206).

험프리(Humphrey 1998: 188)는 소비에트 시대 집단 농장에 대한 연구에서 집단농장원들이, 국가가 가능한 모든 노동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데에 맞서, 더 많은 자유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부로보이와 크로토프(Burawoy & Krotov 1992: 25)는 소비에트 체제 붕괴시의 한 목재소에서, 월말이 다가오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연장근로를 하기는 하지만, 목재소에서 노동에 실제로 투입된 시간은 공식적으로 할당된 것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모두 시간과 공간 그 자체가 새로운 신체를 생산하기 위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살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에트와 소비에트 이후 시대의 노동규율을 이해하기 위해, 선존재(先存在)하는 시공간의 성격이 아니라 신체 관리의 새로운 체제를 낳는 시공간의 변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규율의 준수와 위반은 계급적인 저항의 차원에서 설명되기도 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계급적인 차원 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차원과는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보려 했다. 그것은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도 “소비에트식”의 노동규율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재는, 계획 경제를 통해 노동자에게 부과되었던 시간의 총체성이 퇴각하는 반면, 시간의 새로운 재조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몇몇 번창하는 사기업체는 실업의 위협과 상대적 고임금을 통해 노동규율을 강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쇠락하는

공장들에서는 노동력을 붙잡아 놓기 위해 그전까지의 노동규율 수준마저 지탱하기에도 버거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 관습이 어떤 종류의 시간을 만들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인쇄소에서, 사장은, 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다 엄격한 노동규율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자재를 몰래 훔치기도 했고, 음주로 일주일씩 무단결근한 한 노동자는 부서장으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기는 했지만 해고당하지는 않았다. 인쇄소에서 사유화에 대한 소문이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제 더 확실하게 자재들을 빼돌려야겠다고 말하곤 했다. 인쇄소 노동자들은 사유화가 되면, 새로운 사장은 사람들을 더 바짝 쥘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유화된 셀리호브 기계수리 공장에서도 노동규율은 소비에트 시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듯이 보였다. 이 기계수리 공장은 고임금을 제공하지는 못해도 중간 수준의 월급을 체불 없이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거의 모든 종업원을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하고 새로운 기계에 새롭게 작업장을 조직한 자동차 배터리 업체에서는 이 두 업체보다 노동규율이 훨씬 더 엄격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선뜻 일반화를 하기 힘든 상태에서, 소비에트 시대의 “공간에 대한 시간의 지배”가 붕괴한 이후 무엇이 오고 있는가는 아직 좀더 많은 관찰을 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Alashev, S.

1995 "Informal Relations in the Soviet Systems of Production," In S. Clarke ed., *Management and Industry in Russia*, Aldershot: Edward Elgar.

Alexander, C.

2002 *Personal States: Making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Bureaucracy in Turk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nteby, M.

2003 The 'morality' of poaching: manufacturing personal artifacts on the factory, *Ethnography* 4(2): 217-239.

Birdshell, K.

2000 "Everyday crime at the workplace," In A. Ledeneva & M. Kurkchiyan. eds., *Economic crime in Russia*, The Hague: Kluwa Law International.

Bourdieu, P.

2000 *Pascalian medita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Braverman, H.

1975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Buck-Morss, S.

2000 *Dreamworld and Catastrophe: the passing of mass utopia in East and West*, Cambridge, Mass.: MIT Press.

Burawoy, M. and P. Krotov

1992 "The Soviet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Workers Control and Economic Bargaining in the Wood Indust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7, No.1: 16-38.

Clarke, S.

1996 (ed.) *Conflict and change in the Russian industrial enterprise*,
Cheltenham: Edward Elgar.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Filtzer, D.A.

1992 *Soviet workers and de-Stalinization: the consolidation of the
modern system of Soviet production relations, 1953-196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oucault, M.

1967 *Madness and Civilization: a history of insanity in the age of
reason*, London: Routledge.

Foucault, M.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Foucault, M.

1989 "An Ethics of Pleasure," In S. Lotringer ed., *Foucault Lives*,
New York: Semitext(e).

Holliday, R. & G. Thompson

2001 "A Body of Work," In R. Holliday and J. Hassard eds.,
Contested Bodies, New York: Routledge.

Humphrey, C.

1998 *Marx Went Away: But Karl Stayed behin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otkin, S.

- 1995 *Magnetic Mountain: Stalinism as a civi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romiya, H.
1988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politics and workers, 1928-193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x, K.
1954 *Capital vol.1*, Moscow: Progress Publishers.
- McClelland, K.
1987 "Time to Work, Time to Live: Some Aspects of Work and the Reformation of Class in Britain, 1850-1880," In P.Joyce ed., *The Historical Meanings of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nn, Nancy D.
1992 "The Cultural Anthropology of Tim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21:93-123.
- Munting, R.
1996 "Industrial Revolution in Russia," In M. Teich & R. Porter, eds.,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national context: Europe and the US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e, N, A. Barry & T. Osborne
1996 "Introduction" In N. Rose, A. Barry & T. Osborne, eds., *Foucault and Political Reason*, London: UCL Press.
- Siegelbaum, L.H.
1988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E.P.
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 56-97.
- Thompson, P & D. McHugh
2002 *Work organizations: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 Trotsky, Leon
1918 "Work, Discipline and Order to Save the Socialist Soviet Republic"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works/1918/1918-work.htm>
- Verdery, K.
1996 *What was socialism and what comes nex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llerstein, I.
1996 *Historical Capitalism with Capitalist Civilization*, London: Verso.
- Whipp, R.
1987 "A time to every purpose: an essay on time and work" In P.Joyce ed., *The Historical Meanings of W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itefield, S.
1993 *Industrial Power and the Soviet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oo, C.
1995 (ed.) *Changing Capital-Labour Relations in South Korea*, Brookfield: Edward Elgar.

Time, Space and Body on a Russian Factory Floor

Nam, Youngho*

There is a popular image of Russian workers, by both foreigners and Russians alike, that since the Soviet era they have often violated work regulations, have been idle and have made only improper products. Nevertheless, this paper first shows that even in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the violations of official work discipline are both common and increasing. In any case, work discipline is always reinterpreted and re-created in a new web of meanings, and its actual exercises is a matter of negotiations and interactions between agents and official authoriti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of work discipline in Russia, we need to explore the historical formation of work discipline, and to question its compositional characters as a modern phenomenon. This paper argues that peculiarities of work discipline in (post-)Soviet Russia will be found in the context of time and space.

Work discipline is defined as an ensemble of modern technique that makes the human body produce something useful with efficiency at the expense of least cost and violence. It aims to induce unconscious,

* part-time lecturer, Kookmin University

repetitious, voluntary agreements from the body, and to minimize the use of violence and external measures that are too costly and uneconomical to enforce and sustain a long-term devotion to rules. The spatial and temporal relations are the two main domain by which to give birth to a certain type of subject, that is disciplined workers, but they themselves should be transformed and fitted into the advent of modern industry. Drawing upon E. P. Thompson and M. Foucault's discussions of time and space, this paper analyses how certain modes of discipline have been imposed onto the human body in a certain space and time. However, although the two scholars' perspectives have cast a significant light on the transformation of spatial and temporal relations in modern industry, they have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actors' appropriation of time and space, and their abilities to pass by the official lines.

The mutual needs by workers and managers (or the state) to bend the official work discipline in fulfilling the plan in the Soviet era, have created distinctive forms of work practices on a workshop floor. As the plan was by definition a proclamation of the domination of time over space, time always exerted a priority over space which could be manipulated by workers, in contrast with a triumph of space over time in capitalist work practic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relations between time and space are the loci in understanding the making of workers and work discipline in Soviet Russia, but what kind of shape a new form of work practice after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is taking is still uncertain.

